

주일예배
오전 (1부) 8시 30분 7시
오전 (2부) 7시 30분 7시
오전 (3부) 10시 12시
오전 (4부) 2시
금요일예배 (1부) 18시 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주일예배
오전 (1부) 7시 30분 7시
오전 (2부) 10시 12시
오전 (3부) 2시
저녁예배 7시 30분
수요일예배 (다목적) 8시

인천 교회 032)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예수중심교회

2013년 11월 10일 (제715호)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철야 주일 예배 위치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칼럼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

골프를 할 때의 일이다. 상대가 오비(OB: Outbounds Ball, 공이 바깥으로 나감)를 내자 곁에 있던 사람이 내게 말했다. "목사님, 상대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지요?" 그의 말에 나는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다만 나는 상대의 실수는 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성친구가 없는 사람이 친구처럼 헤어지는 것을 보면 괜히 기분이 좋고, 나를 괴롭히던 상사가 그 옛 상사에게 호되게 야단맞는 걸 보면 신난다. 이것은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으로 여기는 인간의 알락한 본성이다.

중국 속담에 '남의 집 불난 곳에서 새는 냄비 때문이다'는 말이 있다. 남은 불이 나서 아우성인데, 누구는 그 집 화기로 구멍 난 냄비를 때운다는 얘기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악의 정조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시라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잠24:17-18).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여길까? 나는 그것이 비교의식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상대가 추락하면 상대적으로 내가 비교우위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비교된 행복은 언제나 다시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행복한 것이어야 한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사회적 본성이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의 불행에 박수치지 말고, 함께 아파하고 돕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인생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

지난 5일, '이초석 목사 전도집회'가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렸다. 대구 엑스코 집회는 꼭 1년 만에 다시 이뤄진 것이다. 작년 11월 대구 예수중심교회는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집회를 성공리에 치른 적이 있다. 이번에는 오디토리움의 2배 규모인 컨벤션 홀에서 치러졌는데, 그곳 역시 약 5천여석이 입추여지 없이 가득한 성공적인 집회였다. 한송이 목사를 비롯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애썼는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었다.

강사이신 총회장 목사님은 이날 '인생

고, 파란 등이 들어오면 가는 법은 예 지킵니까? 교통법이니까 지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것은 우주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법입니다. 그 분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그 분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께 할가할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영·혼·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패자나 소는 영혼이 없어 죽으면 끝이지만,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영혼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은 도토리를 심으면 도토리 육질은 썩지만 다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또 그동안의 죄를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드렸으니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인데, 그 성경에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6:7)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나쁜 말을 뿌리면 나쁜 것이 나고, 좋은 말을 뿌리면 좋은 것이 난다는 말입니다. 자녀에게 '벌어먹을 놈' 하고 뿌렸는데 잘 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대구 엑스코 집회(2013년 11월 5일, 대구 엑스코 컨벤션홀)

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어디서 와서, 예 살며, 어디로 가는 지 잘 모르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는 분명한 두 길이 있습니다. 그 갈림길은 바로 죽고 난 다음에 있는데, 한 곳은 무서운 것이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는 아름다운 천국길이요, 다른 한 곳은 무섭고, 고통스럽고, 더러운 지옥길입니다.

어느 길로 가고 싶으십니까? 천국길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끔찍한 지옥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보수, 그런 법이 어디 있소?' 하십니까? 그렇다면 신호등에 빨간 등이 들어오면 서

거기서 도토리나무가 나는 이치와 같고, 번데기가 기한이 차면 나방이 되고, 구더기가 기한이 차면 파리가 되는 이치와 동일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썩지만,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 멸정에 고향에 가기 위해서 미리 기차표나 고속버스표를 예매해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으로 가는 길도 미리 예매해놓아야 합니다. 예매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죽든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철십 평생 한 번도 목욕탕에 가지 않던 할머니도 목욕탕에 가서 씻으면 깨끗해지는

다. '나는 안 돼', '내 팔자에 뭘 해?' 이렇게 뿌리면 안 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잘 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지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안 되고, 힘든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잘 하세요. 그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목사님은 설교 후에 병든 자들을 단으로 올려 일일이 안수하셨다. 각색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떠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번 대구 엑스코 집회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단이 다시 일어나 잠든 교계를 깨우기를, 그리고 대구 엑스코에 대구 예수중심교회가 서기를 바란다.

신영서
jesus7857@gmail.com



모든 병자들을 단으로 올려 안수해주셨다



대구 집회가 열린 대구 엑스코 전경



성공적인 대구집회의 주역들



성공을 위해서는 자존심을 버려라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히12:1~3)

저는 이번 과테말라 집회에 가서 고메라(La Gomera) 시의 시장 부부와 데모크라시아(Democracia) 시의 시장, 그리고 두 도시의 많은 지도급 인사들이 참석한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버리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된 것은 자존심을 버리고 배웠고, 자존심을 버리고 원조를 청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강점했던 일본에게까지 가서 배웠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합니다. 절대 자존심이 막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존심은 성공의 적이고, 병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자존심에 타격을 입은 사람은 아마도 수로보니게 여인일 겁니다. 그녀에게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고, 예수님만 만나면 딸이 나음을 입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녀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녀의 면전에도 대고 수치를 안기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깨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막7:27). 한 마디로 ‘개 같은 여자여. 어딜 감히!’ 이리신 겁니다. 그냥 못해준다고 하셔도 될 텐데, 그렇게까지 경멸하지 않으셔도 될 텐데 예수님은 그녀의 자존심을 발로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주여 울소이다마는 상아배 깨들도 아이들의 먹된 부스러

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일을 행하라 하였더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왕히5:13). “장군님, 문둥병이 낫기만 한다면 그자 자존심 좀 상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마음을 돌이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그니 어린 아이 살처럼 되었습시다.

다윗도 살아남기 위해 자존심을 버린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이곳저곳을 쫓겨다니다가 가드왕 아기스 앞에 가게 되는데, 이 때 신본이 노출되자 두려운 나머지 다윗은 미친

나라의 개국공신인 한신 장군이 자존심을 버린 일입니다. 그가 불우했던 젊은 시절에 시장(市井) 무뢰배의 가량이 밀으로 기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싸우지 않을 거면 가량이 밀으로 기어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 무뢰배의 가량이 밀을 기는 한신을 보고 다들 겁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후일 한신은 한고조 유방을 도와 큰 공을 세우고 와서야 과거 자신을 모욕한 건달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때 왜 가량이 밀으로 기었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죽이려 살인자가 되어 도망이나 다니는 신세가 되었을 거 아닌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존심을 죽이고 사람

같지도 않은 네놈의 가랑



척합

니다.

그는 침을

질질 흘리며 미

치광이 노릇을 했습

니다.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뭐고 살고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 하고 대문밖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여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삼상21:12-14).

또 야곱이 장자권을 탈취하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다가 급의환향하는데, 형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이놈! 이 날을 기다렸다.’ 하고 오자 그에게 납작 엎드려 절을 일곱 번이나 하며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은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서요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창33:10)라고 했습니다. 절을 일곱 번하는 것은 왕이나 군주에게 절하는 예법입니다. 한 마디로 ‘살려주소.’ 한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한(漢)

나라의 개국공신인 한신 장군이 자존심을 버린 일입니다. 그가 불우했던 젊은 시절에 시장(市井) 무뢰배의 가량이 밀으로 기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싸우지 않을 거면 가량이 밀으로 기어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 무뢰배의 가량이 밀을 기는 한신을 보고 다들 겁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후일 한신은 한고조 유방을 도와 큰 공을 세우고 와서야 과거 자신을 모욕한 건달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때 왜 가량이 밀으로 기었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죽이려 살인자가 되어 도망이나 다니는 신세가 되었을 거 아닌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존심을 죽이고 사람

던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존심에 관한 옛말입니다. 자존심(自尊心)이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사람 누구에게나 이 자존심은 있고, 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자존심이란 성공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망하고, 죽은 다음에 자존심이 뭐 팔라빠진 거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존심을 버리셨습니다. 그 분은 인류구원, 곧 저와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버리셨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12:2). 재판관을 찾아가 과부 역시 원한을 풀기 위해 자존심을 버렸고(눅18:1-8), 여행 중에

찾아온 벼를 위하여 떡을 간청한 사람 역시 자존심을 버려 목적을 이뤘습시다(눅11:5-8).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데 더욱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타령하는 자들입니다. 저에게 병들어

쓸데없는 자존심은 열등감에서 온다

오거나 자식이 개망나니여서 상당 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울며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주시 거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지 못합니다. 자존심 때문이에요. 좀 배웠다는 겁니다. 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래봐도 박사요, 장관이요, 교수요, 회장인데 어떻게 우냐는 겁니다. 천하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예수님도 울면서 기도하셨는데, 그까짓 박사, 장관이 뭐라고 못 읊니까? 그러면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털 급하시군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니, 아버지 앞에서 무슨 자존심입니까? 아꼈든, 먹을 것이 없는데, 고통 중에 있는데, 내 앞에 문제가 산더미 같은데 무슨 자존심입니까? 구하면 다 주신다는데, 애용하면 위로하신다는데 왜 못합니까? 진짜 털 급해서 그런 겁니다. 아직 살만하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권력이나 부는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63빌딩에 올라가서 밀을 내려다 보세요. 벤츠나 마티즈나 그냥 자동차로 보일 뿐입니다. 당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진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세를 버리고 ‘천부여 외지 없어서 손들고 읊니다’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정은 결과를 대변할 수 없지만, 결과는 과정을 대변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잘 될 같이 범사에 잘 될 때 굳이 당신이 세우지 않아도 자존심은 서게 됩니다. 그 전에 잠시 자존심을 접어두는 것, 그것이 영·혼·육의 성공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성공하는 세일즈맨은 거절당했을 때부터 씬다

기를 먹이다”(막7:28)라고 했습니다. “개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내 딸만 고쳐 주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극찬하셨고, 소원을 이뤄주셨습니다”(마15:28).

또 열왕기하 5장에는 아람 골 시리아의 군사령관인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큰 용사였으나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갑옷과 투구만 벗으면 진물이 줄줄 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에서 잡은 작은 계집의 딸을 듣고 아람왕의 선지를 입어 이스라엘 땅으로 문둥병을 치료하러 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는 그를 맞이하기는커녕 사환을 보내어 요단강에 일곱 번 들어가 몸을 씻으라고만 합니다. 그러니 천하의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대노하여 자꾸만 돌아가려했습니다. 그 때 그를 동행한 종들이 그에게 말합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060)700-0633

(060)700-02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객원칼럼::

::비유열전::

정도경영

최근 모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기업어음(이하 CP: Commercial Paper)의 누적잔액은 9월말 현재 143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CP는 기업들이 단기자금의 조달을 목적으로 시장에서 유통하는 약속어음의 한 부류인데, 최근 인지도는 높으나 한계상황에 직면한 일부 대기업들이 무리하게 CP를 발행하고는 즉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여 다수의 개인 투자자에게 손실을 발생시킴으로써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하였습니다.

CP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으로 구분되나 어음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발행사는 증권신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무 등이 생략되고, 또한 지급정지(부도) 상황에 처했을 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인가를 받게 되면, 채무에 대한 상환조정 및 유예 등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해당기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기존의 경영진을 그대로 유입하는 기존관리인유지제도(DIP, Debtor in Possession)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경영진 혹은 대주주는 이와 같은 결합을 악용하고 있음이 최근의 W. L. S. T 그룹들의 사태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일련의 현상이 발생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배주주들의 도덕성입니다.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달반 정도의 시간이 사전에 필요한데, 그들은 모두 CP를 유통한 직후, 혹은 채권단과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습적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은 계획적으로 손실을 불특정 다수의 채권자에게 전가한 행위입니다.

둘째, 감독기관의 방임입니다. 제도적으로 불완전한 시스템적 약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와 분석력이 뛰어난 기관투자자 및 일부 개인들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위험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에만 현혹되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던 결과입니다.

자본시장의 역사가 유럽 및 북미주에 비하여 짧은 우리나라의 경우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 및 투자자에 대한 보호규정이 아직 미비하고 개인 투자자의 집단소송이 원활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제 3자의 권유보다는 자신의 조사와 분석을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안인 실정입니다.

총회장 목사님은 항상 두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첫째, “불량품은 기업의 암이고 고객은 품질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불량품이나 저급한 서비스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십니다.

둘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씀에 입각하여 관리감독을 위임 받은 자들의 책임에 대하여 특히 강조하시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늘 정도(正道)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역설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몸소 실천하고 계십니다.

임윤석

tomcalvary21@gmail.com

불필요한 것은 없다

다윗은 거미가 쓸모없는 벌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 데나 거미줄을 치는 것이 영 맘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인인 사울에게 쫓겨 도망을 치던 어느 날, 추격자들에게 포위되어서는 도망갈 곳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때 다윗의 눈에 보이는 것은 동굴 하나. 그는 궁여지책으로 그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분명히 추격자들이 이 동굴을 살피리라 생각했지만 당장 이 방법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굴 입구에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거미줄을 쳐서 입구를 막는 것이 아닙니까?

드디어 그를 추격하던 적들이 동굴 앞에까지 왔습니다. 다윗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도망자는 분명히 저 동굴로 피신했을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입구에 거미줄이 쳐 있는 걸로 봐서 그 속에 들어갔을 리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모두 이 말에 동의했고, 동굴

속을 뒤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 다윗은 목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석유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잠16:4)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도 필요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겠습니까? 더러는 자신이 불필요한 인간이라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사람이란 것을 인식시킨 악인도 있습니다.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불필요한 사람입니까? 그래도 당신이 안 태어났더라면 좋았을 사람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피 값을 치르고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나라 왕자요, 공주입니다. 그러니 결맞은 생각으로 사십시오.

예수중심편집실

주님을 의지하는 삶!

사람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걸리게 되거나
여호와의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25)



::Praise the Lord::



귀를 기울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없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저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Amazing Grace’를 작사한 ‘존 뉴턴’(John Newton)은 1725년에 그리스도인 모친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뉴턴을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하며 가르쳤으나 뉴턴의 나이 6세 때 병으로 소천하게 된다. 이후 뱃일을 하는 부친을 따라 선원이 된 뉴턴은 부친으로부터 뱃일에 관한 지식과 세상의 지식만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을 살았다.

노예선의 선장이 된 그는 흑인들을 노예로 팔며 악랄한 행위를 일삼았는데, 어느

날 폭풍우를 만나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된다. 죽을 앞에 선 뉴턴은 어머니의 기도와 찬송을 떠올리며 자신의 지난날을 되돌아보다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수많은 이가 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그를 살리셨고, 이후 회심한 뉴턴은 평생을 기도하며 목사로 사역하는 삶을 살았다. 비단 뉴턴만이 아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될 수밖에 없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의로운 행위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를 받게 되었다(롬5:17-19). 행위로 는 도저히 의로울 수 없는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미끼만 하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선물까지 받게 되었

으니(롬3:23, 엡2:8)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할 뿐 아니라(롬5:1-2), 사는 동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또한 이 땅에서의 짧은 생 위에는 영원한 삶이 분명히 있고(히9:27), 이 땅에서 우리가 일한대로 받을 상급이 있기(계22:12) 때때로 고달프지만 우리의 달려갈 길을 쉬지 않고 가야 한다.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 사도 바울과 같이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나 주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겨나 향해 달음질하자.

이국진

joyful_jina@hanmail.net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자 미국인들이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에이브러햄 링컨은 그의 일생동안 무려 27번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생애는 시작부터 순탄치 못했습니다. 가난한 농부였던 아버지와 미혼모의 딸이었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15세 때 집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았고, 23세에는 사업에 실패하여 17년간 그 빚을 갚기 위해 고생했으며, 24세 때는 주 의회 의원 선거에서 낙선을 경험하고 2년 뒤에야 우여곡절 끝에 정치에 입문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해 약혼녀가 죽었고, 급기야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38세 때 하원 의원에 당선되기까지 4번의 선거와 공천에서 고배를 마셨고, 40대에는 또 다시 4번의 상·하원 의원 선거에서 연거푸 낙선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실패를 극복하고 52세의 나이에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남북전쟁의 승리와 노예 해방이라는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링컨은 낙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단골 레스토랑으로 달려가서 배부를 만큼 맛있는 요리를 싹둑 먹고, 이발소에서 머리를 손질했다고 합니다. 실패한 사람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패가 성공의 원동력이 되는 비결은 실패한 그 즉시 다시 일어나 달려는 것입니다.

신재식 전도사

blessedmc@naver.com

혼자가 아닌 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래전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무심결에 있다가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다. 하나님을 가장 크고 기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찬양했던 다윗. 그의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시편이다. 하지만 그 날, 한 목사는 시편의 곳곳에 있는 다윗의 시름과 고난을 읽어 주셨다. 다윗의 고난이 크고 험난할수록 그의 찬양이 깊고 넘쳤던 것이었음을 가르쳐주셨다. 수많은 복음성가로 만들어진 다윗의 시들이 알고 보면 수없이 많은 시편과 고난 끝에 얻은 열매들이었던 것이다.

요즘 스마트폰 성경 어플로 주제를 정해서 매일 묵상을 한다. 그것은 한줄기 빛과도 같아 지친 내 마음에 촉촉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신다. 최근 들어서 읽기 시작한 주제는 '우울'이다.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댈 곳이 없다는 생각에 별 기대 없이 선택했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큰 위로와 은혜가 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울'이라는 주제의 대부분

이 시편에 수록되어 있다. 시편의 말씀들을 무작위로 읽으면서 새삼 다윗의 고난과 시편이 다시금 떠오르게 된 것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3:5)라는 말씀은, 중동동부 시절부터 즐겨 부르던 복음송이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사라" (시편 46:1)는 말씀을 통해 시시때때로 날 지켜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고,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엄몰하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로 내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69:14-15)라는 말씀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실 이는 하나님 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다.

큰 병을 앓은 뒤 어느 시인은 새해 아침에 한 편의 시를 썼었다.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 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지 않던가.' 죽음의 문턱에서 삶의 소중함을 깨달은 한 시인의 말처럼 세상에 기댈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이다.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연인도, 그 누구도 나에게 위로를 되어주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것들로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과 가장 힘들고 괴로운 그 순간,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사실이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 실 만한 물가를 찾는 것도 고난일 수 있지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더 극한 고통일 수 있다. 힘들고 외로운 순간,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심을 알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자.

전준지

ppjee@hanmail.net

Good News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비극으로 기록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는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하기 위하여 만든 곳입니다. 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약 600만 명의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연합군들이 그 수용소를 점검하러 들어갔다가 후미진 벽면에 선명하게 기록된,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의 신앙고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 하늘을 두두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지옥과 같은 수용소에서 죽음을 앞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하나의 문장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무엇이 그에게 평안과 용기를 주었을까? 그것은 바로 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향한 출발점이었었고, 그 죽음의 현장에도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이니라"(요3:16).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허락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출발하게 만든 것입니다. 시종을 알지 못하는 인생, 사후를 준비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상희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나도 건강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과장광고

퇴행성관절염에 도움이 된다는 글루코사민의 유명세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유명세만큼 효능이 있는 것일까요? 연골을 구성하는 재료이므로 연골을 재건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칼슘은 먹으면 뼈로 간다는데 글루코사민을 먹으면 연골로 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 입니다. 칼슘은 그 자체가 원소이므로 몸에 흡수되면 뼈로 갑니다. 하지만 글루코사민은 아미노당으로서 섭취하면 여러 경로를 통해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분해되고 말입니다. 글루코사민의 효능에 대한 임상결과들이 각각 다른고 논란이 종식되지 않자 미 국립보건원이 6개월에 걸쳐서 글루코사민 복용한 환자들과 복용하지 않은 환자들 간의 차이를 보는 임상실험을 실시하여 최종결론을 내렸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관절 통증을 줄이지 못하며 관절기능을 회복시키지도 못하며 보건당국과 보험업체들은 제품 구입비

용을 지원하지 않고 처방을 내는 것을 막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효능이 입증되지 못해 약으로 승인되지 못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와 oo증상에 '도움을 준다' 가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다' 로 표기해서 판매되는 것입니다. '도움을 준다'는 확실한 효과가 있음을 말하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효과가 있으면 좋고, 없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코엔자임 Q10은 비타민 유사작용인자입니다. 모든 생물의 살아있는 세포에 존재하며, 다른 효소와 함께 영양소를 에너지화 하는 생화학과정에서 참여하게 됩니다.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간, 심장과 같은 장기에 많이 분포하며 노화와 함께 그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코엔자임 Q10의 기능성에 대해서 식약청이 인정하는 것은 노화와 관계된 항산화 효과와 혈압을 감소시키는 기능입

니다. 실제로 1970년대까지 코엔자임 Q10은 심혈관계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의약품으로 취급되었지만, 미국에서 연구결과 그와 같은 기능성에 부정적인 결론이 나면서 의약품 자격이 박탈되었고, 고혈압에 대한 일부효능이 있을 뿐 항산화작용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글루코사민처럼 효소도 세포에 존재하며 기능할 뿐 효소를 복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흡수되어 기능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효소도 위 장관을 통해 위산과 소화액에 노출되면 분자구조가 산산이 분해되어 기능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과신하여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 보다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전문가와 상의하여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

Q&A

Q: 어떤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가 특별히 잘 올라가는 장소가 있으며, 특히 새벽 1시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임한다고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기도가 특별히 잘 올라가는 장소와 시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은 성전이나 산이나 바닷가, 풍야, 골방, 감옥 등에서 기도했습니다. 천지만물에 편만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드리는 진정성 있는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도생활을 하다보면 영적인 전쟁이 심한 장소가 있습니다. 간혹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영력이 다르기에 이길 수 없는 환경이라면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무런 방해 받지 않고 집중력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좋은 기도 장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과 시간은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기도는 매일 해야 하는 것이므로, 하루 중에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하신 권사님에게 편한한 장소와 응답받는 기도의 시간이 있을지 모르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기준은 결코 아닙니다.

시간 날 때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키기 어려운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 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이면 저녁이든 새벽이든 간에 자기 형편에 알맞은 시간을 정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